

사랑이 이끄는 사역



“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
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
너희에게 썼노니 이는
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
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
너희를 향하여
넘치는 사랑이 있음을
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”
(고후 2:4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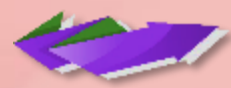
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를 잘 연구해 보면 그가 교회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, 특별히 1세기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.

바울은 안팎으로 닥쳐올 이러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키며,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지도했습니다.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오늘 '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'(고후 2:16)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



고난 당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



사역의 거룩함과 진실됨



지혜롭게 처신함



용서와 회복



그리스도의 향기

고난 당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

“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.” (고후 1:4)

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위로에 관해 가장 폭넓게 다룬 서신입니다. 당시 고린도 교회는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,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를 읽고 교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.

그러나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“하나님의 뜻”이었고(고후 7:10), 바울은 그들이 근심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받기를 원했습니다.



바울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(고후 1:8-10)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고,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(고후 1:6).

하나님의 위로

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

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억을 되살리고

고난을 견디도록 돕고

영적으로 성숙하게 함

다른 사람들을 위해
증보하도록 격려함

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
것처럼 서로를 위로합니다.

사역의 거룩함과 진실됨

“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.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” (고후 1: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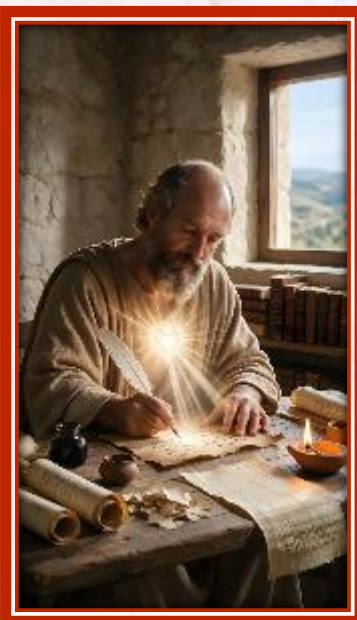
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불품없고(약하고)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업신여겼습니다(고후 10:10).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응하고 자신의 지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변호해야 했습니다.

한 개인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(엡 3:8).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양심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(고후 1:12).



따라서 바울의 글에는 숨겨진 의도가 없었습니다. 그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으며,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이 바울의 의도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(고후 1:13-14).

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그 외의 행실에서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(순결)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.



지혜롭게 처신함

“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” (고후 1:23)

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려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(고전 16:5-11).

에베소

마게도니아

고린도

유다

그 후에 보낸 편지(현재 소실됨, 고후. 7:8)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두 번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(고후. 1:15-16):

에베소

고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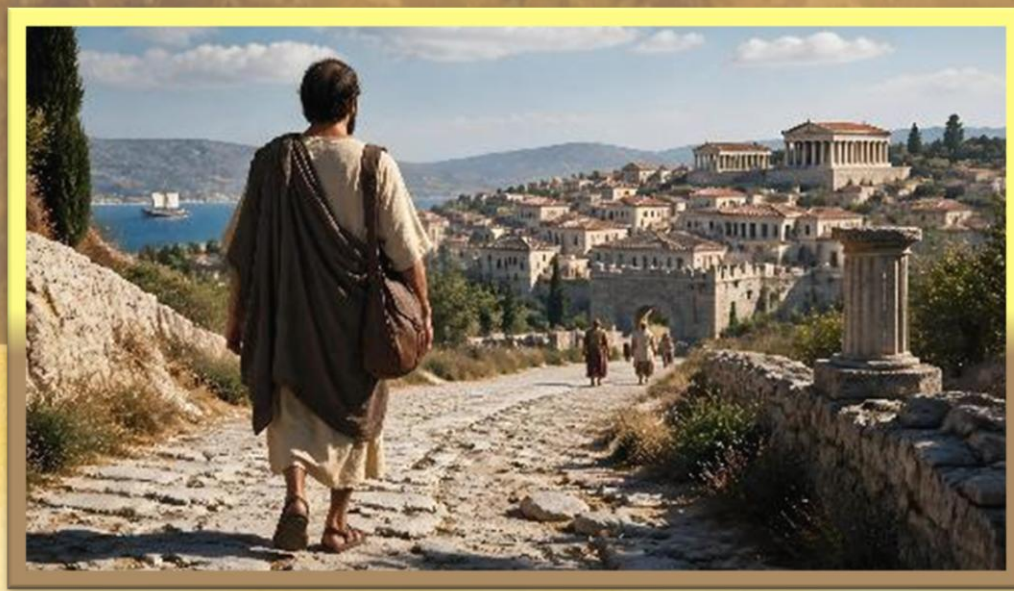
마게도니아

고린도

유다

그러나 그는 고린도에 먼저 가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(고후 1:23).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바울이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고 비난했습니다. 그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?

고린도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날 경우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고, 이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(고후 2:1-4).



용서와 회복

“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.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할 것입니다” (고후 2:10)

바울은 드로아로 향했고 디도는 고린도로 갔습니다.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. 그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줄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(고후 2:12-13).

얼마 후, 디도는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.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(고후 7:5-9, 13-16).



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교회 내의 징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사도의 지시에 따라 책망을 받았고,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 단계, 즉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(고후 2:5-11).

그리스도의 향기

“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” (고후 2:15)



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도록 “문”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외칩니다. “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”(고후 2:14).

사방에 퍼지는 향기처럼,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영혼들에게 퍼져 나갑니다. 이 향기는 우리에게 그러하듯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(고후 2:15-16).



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며,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(고후 2:17).



“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인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에 담긴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.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기독교에 수치가 되지 않았으며, 오히려 자신들의 삶으로 경건함을 실천함으로써 이웃들에게 강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...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실 때 죄 지은 사람은 회개, 즉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릴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혔다고 말했습니다.